



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2월에 종신서원을 한 문수경 아가다 수녀입니다. 지금 사도직은 교회법 대학원에 재학 중인 학생입니다.

본당 수녀님이 사랑의 씨튼 수도회 수녀님이셨는데 수녀님께서 “우리 집에 한 번 놀러 올래요?” 라고 하신 말씀이 마음에 남아서 물어보니 집이라는 곳이 본촌동에 있는 본원이라고 말씀해주셨고, 고요 속의 현존 기도 모임을 통하여 사랑의 씨튼 수녀회와 인연을 맺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듬해 2006년에 입회를 하였습니다.

어렵듯이 알고 있던 수도 생활을 직접 살아 보니 이상과 현실이 달랐지만, 이곳 역시 사람들이 사는 곳이고 하느님께서 사랑하시는 사람들을 불러 모아놓으신 공동체라



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첫 서원을 하고 본당과 피정 사도직을 통하여 다양한 신자들과 함께할 기회가 많았고, 늘 제가 주는 것보다 받는 것이 더 많은 수도 생활을 보냈습니다.



그러던 중 한국에 교황청립 교회법 대학원이 생겼고, 법학을 전공한 저에게 좋은 기회를 하느님과 수도회에서 마련해주셨습니다. 막상 교회법 공부를 제안 받았을 때 가장 속고한 것이 대학을 졸업한 지 거의 20여년이 되었는데 공부를 따라갈 수 있을까 하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공부를 통해서 하느님과 수도회 그리고 교회와 교회에 속한 사람들을 위해 봉사할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해서 기쁘게 시작할 수 있었습니다. 솔직히 우리나라 언어로 공부해도 어려운데 외국에서 공부하시는 수녀님들을 생각하면 제 고생은 아무것도 아닌 듯합니다.



교회법 대학원은 3년 과정인데 저는 신학 학위가 없는 관계로 예비과정 2년을 더 하여서 제가 공부해야 하는 기간은 총 5년입니다. 이 예비과정 동안에 철학, 신학, 라틴어를 배우고 저는 올해 2018년에 입학하여서 수녀님들의 기도와 성원 덕분에 1학년 과정을 무사히 마쳤습니다.



이제 한 걸음 내딛었지만 주님과 함께 꾸준히 한발 한발 걸어가면 언젠가는 주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이 되지 않을까 하고 희망하고 있습니다. 공부가 제일 쉬웠어요~ 라고 말하지는 못하지만 그래도 재미있습니다. 이때가 아니면 제가 또 언제 이 많은 책들을 읽을 수 있을까 하는 마음으로, 언젠가 저를 통해 하느님께서 하시고자 하실 그 날



과 일들을 생각하며 하루하루 기쁘고 보람차게 보내려고 노력합니다.



Hello! I am Sister Mun, Su Kyeong. I professed my final vows last February (2018). Now I'm studying Canon Law in graduate school. The Sisters of Charity worked in my parish. One day, one of the sisters asked me, "Won't you come over to our house?" Her invitation came to my mind so I asked her where her house was. She said that it was the Provincial House of the Sisters of Charity in Bonchon dong, Gwangju. Then I joined the Taize prayer meeting, "Presence of Silence," in the provincial house and continued to build a relationship with the sisters. The very next year,

2006, I entered the community.

Living my religious life that I barely knew, I realized that the ideal and the real life were very different. I came to know that this religious community is a place where people live together and where God has called his beloved.



After my first profession, I worked at parishes and a retreat house. The ministries gave me many opportunities to meet and work with various people. In my religious life, I received more from others than I gave to them.



In the meantime, The Canon Law Institute

(the Faculty of Canon Law of the Pontifical and Royal University of Santo Thomas, Manila, the Philippines) was established in Korea. God and the community provided me a good opportunity to study Canon Law because I had a bachelor of law. When I was asked to study, I was concerned that I could keep up with the course as I had graduated university about 20 years ago. However, I began to study with joy believing that it was a chance to serve God, our congregation, the church and people in church. In fact, it is hard for me to study even in Korean but I thought that my difficulty is nothing compared to that of our sisters who are studying abroad.



Canon Law Institute is a three-year Master's program. However, I need to have a two-year preparatory program because I don't have a bachelor degree of Theology. I will study for a total of five years. In the preparatory program, students study philosophy, theology and Latin.

I entered the Institute in 2018 and finished my first year of the program thanks to the prayer and support of our sisters.



I have just taken my first step. I hope that someday I will become what the Lord wants me to be if I walk steadily with Him. I cannot say that studying is the easiest. But it is one of the most interesting. I'm sure that if not now, I will have another chance to read so many books. Believing in the work of God through me and in His own time I strive to live a joyful and worthy life every day.

